

---

## 특별강연

---

동아시아의 미래, 역사분쟁을 넘어서 ..... 이 태 진

‘정신의 자유’와 일본의 민주주의

— 한일 지식인과 시민의 대화를 위하여 —

.....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哉)

번역: 김 항

2004년 6월에서 2005년 3월 사이에 서울대와 동경대 사이에 작은 학술 교류가 있었다. 동경대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也) 교수가 2004년 6월에 동교의 <共生을 위한 국제 철학연구 센터>의 국제 세미나 프로그램 “歷史・暴力・法”에 李泰鎮 교수를 초청하여 근대 한일관계에서의 법과 폭력에 관한 주제로 3주간의 집중 강의(6월 24일에서 7월 9일까지)와 1회의 특별강연(7월 15일)을 가졌다.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는 기초교육원과 함께 이를 양교의 교류 차원에서 발전시키고자 2005년 3월 31일에 다카하시 데츠야 교수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여기에 이태진교수의 특별강연문 “동아시아의 미래, 역사분쟁을 넘어서”와 다카하시 교수의 강연문 “정신의 자유와 일본의 민주주의 — 한일 지식인과 시민의 대화를 위하여 —”를 함께 실는다. 두 강연문은 모두 현재 한·중·일 3국간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 분쟁을 미래 지향적으로 다루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편집자>